

SGML의 물결

유경희
(사)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부회장

1. SGML이란?

필자가 한달전에 미국 보스톤에서 개최하는 “전자출판 국제표준회의”에 참석하였다. ISO/TC46 한국위원회의 위원장자격으로 한국대표로서 참석하였다. 그저 여느 국제표준화회의와 비슷하려니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 우리나라가 낙후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온 회의였다.

정보산업분야 국제표준이 대체로 모두가 ISO/IEC JTC1에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의 전산인 모두가 JTC1에 집결되어 있어서 ISO TC46(문헌 및 정보)분야에서의 국제표준은 물론 국내 표준까지 완전히 사각지대이다. TC46 국내활동은 어디에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필자가 현역인 당시에 수십차례 권고한바 있으나 어느곳

에서도 기피하기 일수였다. 이제 일선에서 물러난지 2년이나 되었는데도 아직도 “TC46 국내위원장” 감투를 본인이 쓰고 있다.

TC46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표준은 100여건이 넘으며 한국이 참여한것은 겨우 한글로마자표기법 하나밖에 없다. 이나마 북한과의 의견불일치로 인하여 10년이나 끌어서 이제야 국제표준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그밖에도 TC46에서 시작하여 각분야에 영향이 미친 표준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EDI가 그렇고 CD-ROM포맷,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검색명령어 등은 모두가 TC46에서 시작한 것이다. 특히 전자출판분야의 국제표준은 이제 그 영향력이 막강하여져서 커다란 변혁이 이미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번에 보스톤에서 개최된 TC46/SC4/WG6(전자출판)의

국제표준화회의는 SGML '95라는 전국대회와 함께 심포지움, 전시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워드프로세서로부터 SGML로”의 이행이 급속히 진행중임을 확인할수가 있었다. 더욱이 멀티미디어가 추가삽입되기 시작하여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기본개념이 변화하고 있었다.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 굳이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문서기술언어 SGML”이라고 하고 있다. 이것이 ISO 8879로 국제표준화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KSC5913으로 국가표준이 제정되었다. 이들 규격에서는 문서구조의 정의(Document Type Definition, DTD)를 내려서 공통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추가해서 국제표준(ISO 12083)으로서 “전자원고의 기술양식(Electronic

manuscript preparation andmarkup)"이라는 규격이 제정되었으며 이것은 모두 SGML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다.

2. 표준화회의 내용

지금까지 제정된 규격으로서 전자출판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수많은 이용자들이 활용한 경험에 따라 ISO 12083의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화학자들이 화학공식을 그림으로 컴퓨터에 입력하기 어렵다던가 수학자들은 수식을 기록할 수 없다던가 해서 개정의 요구가 많이 나타났다. 또한 서지정보의 표기방식을 표준화해서 이 규격안에 삽입해야 한다던가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안을 작성하고 다음번 회의(1996. 5. 12-17, 독일, 뮌헨)에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다. 아마도 금년중으로는 "전자원고작성법"이 완전히 국제적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이것은 요즘 논의가 풍성한 EDI, CALS 등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며, 각종 문서, 도서, 논문, 브로셔 등의 제작에서 한가지 단일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이른바 SGML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비단 전자문서, 도서,

논문 등의 작성제작을 하는 업체만이 아니라 수많은 저술가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착착 정착하고 있으며, 워드프로세서의 시대에서 SGML에디터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최근에 "일본어 SGML에디터"가 개발되어 보급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의 충분치 못했던 워드프로세서의 기능을 훨씬 더 일반화하는 도구로서 활용이 될 전망이다.

우리가 할일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글SGML에디터"를 만드는 일이며 그러기 위해서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일이다.

3. 워드 프로세서를 쓰면서...

오늘날 도처에서 PC, 노트북 등의 글쓰기 도구들을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다. 필자도 글을 쓰는 습관을 노트북 컴퓨터로 한지만 오래 되었으며 이 원고도 그것으로 작성하고 있다.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면서 항상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판에 충분히 글자가 기능문자가 없다는 것이고 컴퓨터 자판에 있는 각종 특수문자가 우리 글의 문법에 완전히 맞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원고를 작성한 다음에는 반드시 사람이나 에디터를

거쳐서 재편집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때로는 이것을 인쇄장치의 규격에 맞게 변환까지 해야 한다. 아직은 글자밖에 처리할 줄 모르며, 그림이나 음성까지의 처리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불편한 것은 다 쓴 원고를 비록 온라인으로 보내더라도 이것이 책자로 출판할때는 그림이나 특수문자, 기호, 문자의 크기나 글자꼴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어 자동화의 이점을 전혀 실감할 수가 없다.

컴퓨터로 글을 쓰는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 화면에서 책으로 출판하였으면 하는 내용을 모두 입력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다. 화학공식, 수학기호, 서지정보는 물론이고 글을 음성으로 발하는 장치에 연결하면 소리를 내게 할수있으며 멀티미디어를 삽입하게 된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가 양산이 되는데 앞으로의 데이터베이스의 모습은 SGML로 작성된 전자원고가 책자발간, 데이터베이스 작성, CD-ROM제작, 네트워크 전송 그밖에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서둘러서 한글 SGML에디터를 개발해서 일반화 한다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